김 일 성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20일

나는 오늘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울여온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를 보게 된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데서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이 발효됨으로써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로 이어진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였으며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협력하

면서 함께 통일을 향해 나갈데 대하여 서약한것은 어떤 외부세력도, 사상과 제도의 그 어떤 차이도 수천년동안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을 갈라놓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여러분들의 회담성과를 두고 민족공동의 성과로, 민족적리념의 력사적승리로 여기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참으로 귀중한 첫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이 걸음은 이제 멈추어서도 안되고 주춤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래일의 통일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우리 나라의 분렬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결하려는 자세이지 통일하려는 자세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로써는 북과 남의 합의사항도 제대로 리행할수 없으며 서로 책임질수 있고 신뢰할수 있는 대화도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화해를 약속한 이상 이제는 대결관념을 버리고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족을 신뢰하고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또한 평화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불가침에 합의한 조건에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불가침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도 여기에 있고 북침과 《남침》의 위구를 완전히 가시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안에 외국군대도 있을 필요가 없으며 외국의 군사기지도 있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조선에 아직 핵무기가 있

는지 아니면 다 나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30여년동안이나 핵위협을 받아온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오늘도 가셔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우기 동족을 멸살시킬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가질수 없을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것은 민족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

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상의 장벽, 제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폭넓은 민족대단결과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정치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합의문건들은 북과 남의 책임있는 당국이 민족앞에 다진 서약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번의 력사적인 합의문건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한 고귀한 결실로 여기고 그 리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호상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수 있고 온 민족이 바라는 90년대통일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끝으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욱 힘있게 열어나가며 쌍방대

표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